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재호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절에 따라다녀 본 적이 있다. 절은 세속을 벗어나 지옥과 극락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은 미지의 세계로 어린 나를 이끌었다. 아직 도 절에 대한 생생한 추억은 절에 들어가면 속세의 번잡함과 잘못을 모두 벗어 버리고 새로운 또 하나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 같은 왠지 두려움과 신비함의 대상이었다. 어린 나이에 도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삶에 대해 반성을 하게 하던 묘한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일주문을 지나 사천왕문을 들어서면 때때로 왠지 잘못된 것이 많아 밭을 밟을 것 같은 두려움에 머리가 주뻔 서고 입안으로는 소리를 죽인 반성의 주문이 우물우물 배어 나오곤 했다. 사천왕 문턱을 넘어 펼쳐지는 아주 넓고 정갈하게 빚어져 놓은 마당은 우리를 편안한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고, 그런 마당에서 올려다보는 대웅전은 거장했다. 돌계단에 올라서서 대웅전을 들여다 보면 어두컴컴한 법당 안에 인자한 부처님이 안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하지만, 대웅전 안에 앉아 있는 불상을 보면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왜일까?

어떤 때는 매우 인자한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준엄하게 꾸짖는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냥 조각처럼 보이기도 했다. 마치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웃는 것인지, 슬퍼하는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무관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설명은 간단했다. 부처님은 원래 그대로 계신데 부처님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는 슬퍼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많으면 무서운 부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의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언제나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 18대 국회

부처님의 얼굴

의원 선거는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다. 하지만, 올해 6·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참패를 했다. 그러나 지난 7·28 재보선에서는 다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다. 대개 지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정당 다음 선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여당과 야당은 기대 이하의 참패, 기대 이상의 대승이라고 자랑을 한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국민의 심판이 무섭다는 평을 내놓곤 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의 대응도 극단적이고 신속하다. 6·2 지방선거의 결과와 나오자마자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가 사퇴를 했고, 7·28 재보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은 아니다.
승자의 득표율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승자에 못지않게 패자에게 지지를 보낸 유권자도 언제나 상당수 존재한다. 정치적 분위기, 선거전략, 정책의 차이 등이 승패를 좌우하는 5% 안팎의 차이를 나타내고 이것이 모아지게 되면 어느 당이 압승, 완승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국민들의 모든 정치적 성향이 급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 선호, 그리고 정당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정당이 후보자들이 이를 잘못 읽어내면서 선거 결과에 실망하는지 모른다.
연약한 중생들이 바라보는 부처님의 얼굴처럼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은 다양한 얼굴 모습으로 비쳐질지 모른다. 국민들이 언제나 무섭게 표현하는 유권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약점 많은 정치가나 정당에 인식하는 국민의 얼굴이다.
국민들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정치를 잘못하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무서운 국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을 언제나 보게 되는 것처럼, 올바르게 참된 정치를 하게 되면 언제나 올바르게 맞아주는 국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영터리 건강검진’ 광주가 전국 최고라니

광주지역 건강검진이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 소속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의료기관 3곳에서 영터리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무려 2만3700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 적발사례 4만5823건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검진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니 황당하고 놀라기가 짝이 없다.
영터리 건강검진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수익률을 정한 뒤 출장 차량을 의료인 소유로 등록해놓고 출장 건강검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당연히 자격을 갖춘 의사가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판정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비의료인이 검진에 참여한 것이다. 이때문에 승합차로 효력행위를 하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환자가 3개월 만에 위암 말기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검진인력 미비 사례’는 자격이 정지된 무자격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직접 검진을 한다든가 검진기사 미등록자 등이 검진에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암 판정 여부 등 최종 검진 결과 보고서를 전문의사 대신 간호사 등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건강검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에서야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한 검진기관을 퇴출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부실을 이유로 퇴출된 검진기관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가 ‘영터리 검진’을 방치한 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 건강검진 실태를 정확하고 철저히 파악해 부실기관은 명단을 밝히고 의료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적자’ 광주시 출연기관 회계업무도 ‘엉망’

광주시 일부 출연기관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수익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수익계약을 자동 연장해 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오다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고 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5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을 할 경우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에게 수익계약으로 용역을 준 후 이를 5년간 자동 연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6건의 장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출내역서도 검토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견적을 근거로 기초금액을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영여방송국 역시 2000만원~5000만원 이하 용역계약을 조달청 계약 사이트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수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디자인센터는 4개 사업의 보조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결산 처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규정도 무시하고 주먹구구 식인데다 엉망으로 회계업무를 본 것이 다. 회계 처리가 이 정도라면 현재 남비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오다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고 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5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을 할 경우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에게 수익계약으로 용역을 준 후 이를 5년간 자동 연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6건의 장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출내역서도 검토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견적을 근거로 기초금액을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영여방송국 역시 2000만원~5000만원 이하 용역계약을 조달청 계약 사이트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수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디자인센터는 4개 사업의 보조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결산 처리했다고 한다.

NGO 칼럼

이국언



올해는 일본의 한국경제침략 100년이 되는 해다. 국권을 빼앗긴 민족이 어떠한 수난과 비참함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지난 100년의 아픈 상처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민족 고유의 우리말도 말살하고, 심지어 제 성씨에 이름까지 쓸 수 없었다. 민족들은 도탄에 빠진 것도 모자라 이역만리까지 끌려가 질박한 땅의 소포품 신세가 되어야 했다.
기껏 3000만 인구도 채 못 되는 시기에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연인원만 800만명에 이르며, 일본·만주·사할린·남태평양·중국 등 해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만 103만명에 이를 정도이니 그 민족적 고통이란 것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있느냐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 일본 정부의 태도만을 탓하며 손 놓고 있었던 한국정부 역시 일본의 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99년 사건을 보자. 일본 후생 노동성은 최근 해방 65년 동안의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65년 전 액면가 99원을 지급한 것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규정이 없다’는 공색한 변명이었다.
한마디로 이는 무력한 대응이 자초한 결과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처음부터 외교적 협상을 포기했다. 그저 “상의 있는 조치를 바란다”며 일본정부의 선처에 기대왔었다. 상대가 스스로 이렇

기고

백종환



광주지역 유통업의 명맥을 유지해 오던 빅마트가 최근 경영난 심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광주은행에 들어온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5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빅마트는 대기업의 대형 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잇따른 진출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생존 기반을 위협받았을 때에도 지역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켰었다. 그동안 빅마트는 아재와 채소, 생선 등 철저한 지역 밀착형 경영을 해왔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들의 대부분이 광주·전남산으로 1000여개에 달하는 지역 농가와 협력업체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로 강점이었다.

점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법안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안은 개설 허가제 전환 및 거리와 영업장 면적,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것으로 여야 58명의 국회의원들이 결의했으나 개정안 협상과정에서는 이보다 대폭 후퇴한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중소상인법)과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내용’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기업상생법·대기업의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내용) 개정안으로 둔갑했다.
하나 이마저도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나라당 소속 지식경제위 위원들이 유통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

이것이 비단 과거만의 일일까? 해방 65년이 되도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 반환문제, 일본정부가 끊임없이 국제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한일 간 갈등은 오늘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또한 그 원인이 일제 침략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 과연 1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100년에 주목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즘 일본정부의 태도를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해방 65년 만에 후생연금 담보수당금으로 자정면 반 그릇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99엔(한화 약 1300원)을 지급하는 일본정부의 태도가 그렇다.

게 무력하게 나오는데, 그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이뿐이 아니다. 일본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는 미불입금을 해방 6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은행에 그대로 보관중이다. 최소 4조원대에 이른다. 과연 그 돈이 어떤 돈인가. 그런데 반환해 달라고 요구조차 않고 있다.
8·15를 앞두고 간 나오도 일본총리의 담화 발표가 접처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일본 총리의 일면 처다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관방장관마저 한일청구권협정의 미흡함을 고백하고 있는 마당인데 한국정부는 그 어떤 외교적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다. 제 나라 제 정부를 두고, 일 본정부의 담화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일제 피해자들의 심정은 얼마나 타들어갈 것인가. 이 여름이 더 갑갑한 기만 하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SSM 규제 관련 법안 정비 시급하다

또한, 빅마트는 매년 영업이익의 10% 상당을 무등산 공영화운동과 푸른길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해왔다.
광주지역 유통업은 호남 최초의 백화점인 화니백화점과 가든, 송일백화점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전성시대를 맞았으나 이때까지도 이들 향토 백화점이 동네 상권을 해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신세계 백화점을 필두로 1998년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입점하면서 향토 백화점이 무너졌고, 2000년대 들어서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향토 중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과 그 가족들이 실패를 잃고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 취업업종 및 품목에 대해 더 이상 대기업의 시장 잠식과 지배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과 대기업 규제 내용이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외교부 주장을 내세워 선(先) 유통법 통과, 후(後) 기업상생법 처리로 입장을 급 선화해 야당과 격론을 벌인 끝에 상반급 국회 본회의를 마감하게 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 방식의 SSM도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조정이 걸린 SSM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개점을 추진하던 삼성테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의 사업 진행에 제동이 풀릴까봐 걱정하는 데 이마저도 무산되어버린 것이다.
국회는 제반 법률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중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도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예산 및 정책 지원을 통하여 균형 있는 유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학박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수>

無等鼓

‘한 달 칠거하고 낫더니 스타가 됐다’ 8·8 개각의 하이라이트인 김태호(48) 국무총리 내정자를 이르는 말이다.
제선의 경남도지사 시절이었던 지난 1월 25일 김 내정자는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04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42세의 최연소 지사로 당선된 후 3선 가도가 탄탄했던 그의 불출마 선언은 이미 차기 대권 시나리오의 ‘복선’을 깔고 있었다.
김 내정자는 지난 6월 말 임기를 마치고 주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자택에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터서 한 달 침거 끝에 국경을 강타하는 파란의 주인공으로 컴백한 셈이다. 아직 총리 인준 청문회라는 터널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후보 지명 자체가 메가톤급 뉴스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지도자로서의 교세 바람이 거세다. 영국과 핀란드가 40대 총리를 맞았으며, 후자는 최근 최초의 40대 여성총리가 선출됐다. 핀란드도 지난 6월 42세인 집권 중도당의 당수인 마리 키비네미를 총리로 선출했

다. 4월 헝가리 총리에 오른 오르반 빅토르도 현재 47세이다.
대표적인 젊은 지도자는 버락 오바마로 2009년 당시 47세의 나이에 미국 대통령에 올랐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08년 최연소(42)로 취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공화국 때 초대 이범석(47), 4대 백두진(44), 3공화국 때 인 9대 정일권(46), 11대 김종필(45)에 이어 김 내정자가 건국 이후 5번째다.
공자는 40세가 되어야 비로소 세상에 미혹함이 없었다는 데서 40대를 ‘불혹(不惑)’이라 칭했다. 김 내정자가 총리 인준을 마치면 ‘불혹 총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내정으로 벌써 여권의 대권 후계 구도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야권의 대응 태세도 만만치 않다. 이미 커다란 정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들어선 그가 정말 미혹하지 않고 총리직을 잘 수행해 낼지 두고 볼 일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불혹 총리



피서지 쓰레기에 몰살... 되가져가는 시민의식 필요

언어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 산, 계곡 등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피서객들이 마구 넘쳐나고 있다. 가족들과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 쌓인 피서지를 청소하는 것은 좋지만 먹고 남은 음식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을 모르는지, 피서객들이 쉬었다 간 곳에는 쓰레기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저녁이 되면 젊은 남녀들의 도를 넘는

애정행위와 취객들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매년 여름휴가 때면 피서지마다 각종 쓰레기와 청소년들의 풍기문란 행위, 불법주차 등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 피서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의 실천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노광웅·광주시 북구 용봉동

수영장 पू에 들어갈때는 꼭 샤워 후 이용해야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실외수영장에 다녀왔다. 수영장은 오전부터 선풍타고 오 일을 바르는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그런데 선풍을 하던 사람들이 오일을 바른 상태로 그냥 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특히 여자들 중에는 온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화장까지 한 채 그냥 풀로 들어가는 경우가 적잖았다. 풀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수영장 물

은 기름기로 끈적끈적해 불쾌했다.
예전에 수영장 안에서 실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질을 위해 염소 소독을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요즘은 아예 여성 화장품 중량용 화학첨가제를 따로 더 뿌려 섞어 넣어야 할듯하다. 아이의 입으로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다. 공공장소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양창숙·광주시 남구 구소동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including title '光州日報',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